

이 여름, 나무의 말이 들리시나요?



서선미의
기후에세이

흔한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분노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은 ‘부암동 은행나무 살리기 60인’의 이름으로 환기재단 이사장과 환기미술관 관장을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장 옆,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간 것이 시작이었다. 사태의 발단은 미술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조경업자들이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곤충도 제조제를 주입한 것으로, 낙엽 처리와 열매 악취 민원, 담장 붕괴 우려가 이유였다고 한다. 미술관은 의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민과 미술관 측 공방으로 시끄러워지는 사이 은행나무는 여전히 누런 잎을 떨구어 뱉다. 가을에 떨어질 은행잎들이었다. 미술관은 ‘서촌’이 관광지로 뜨기 전에도 꽤 유명한 공간이었다. 한국미술의 거장 고(故) 김환기 화백을 기리는 이튼바 ‘김환기 화백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김환기화백의 호는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의 ‘수화(樹話)’다. 좋은 예술

가는 세상 모든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스스로 나이를 몸에 품는 나무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아니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를 예술가라 부른다. 나무와 이야기한다던 예술가는 사라지고, 김환기 화백의 이름만 남은 것일까. 다른 어디도 아닌, 화가의 ‘그곳’에서 벌어진 일거에, 사람들은 탄식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자연 파괴’라는 흐름에 놓여 있다. 지구는 매년 여름 역대 최고 기온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대도시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호주의 국립대인 RMIT대학교 산하의 연구소에 따르면 도시 열섬 현상을 억제하려면 건물 주변 반경 60m 이내에 최소 30% 이상의 나무그늘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의 오래된 나무는 최후의 ‘기후 방패’ 역할을 한다. 거대한 노거수 한 그루는 10평형 에어컨 10대를 하루 스무 시간 동안 동시에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냉방 효과를 낸다. 스마트폰을 약 2만5000회 완충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과 상쇄되기도 한다.

긴 세월 인간과 함께 해 온 나무는 인류 생존을 위한 모두의 공유재이다. 김선우 시인은 시 ‘오동나무의 웃음소리’를 읽는다. ‘문 밖까지 땅 끝까지 강물소리 자본자본 번져가 고푸른 잎새 축축 휘날어지도록 열매 주렁주

렁 매단 오동나무가 흐뭇하게 따님들을 굽어 보시는 것이었다’는 시인의 식구는 동네 나무 한 그루가 모든 딸들과 딸들의 어머니와 그들이 낳을 다른 딸들의 ‘식구’임을 보여준다. 환기미술관에 기후 문해력을 애써 묻지 않는다.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담을 두고 긴 시간 같이 한 ‘나무’를 미워하는 일에만 눈 먼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사과는 답이 아니다. 편리를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존재쯤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 인류의 본성이라면 모든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전반에 ‘기후·생태적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는 공공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또 시설 관리가 주변 생태계와 기후 변화, 시민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세워 제 이익만 쫓는 그들 앞에 제시해야 하는 것일까.

민낯의 인간은 기후위기를 만들고, 치명적 기후위기는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무수히 떨구어 낸 마른 잎사귀들은 인류의 생존을 묻고 또 묻는 ‘목소리’로 들린다. 사람들은 나무의 말에 귀를 막고, 그 아픈 소리를 꼭꼭 씹으며, 2026년 여름을 지나고 있다. 데면데면한 지나침이 아닌 오동나무 그늘 아래 서서 나무의 흐뭇한 표정을 읽을 줄 아는 ‘그 시인’의 시선으로 오래, 깊게 들여다보고, 귀기울여야 할 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정책전문위원

메가프로젝트 성패는 ‘인프라 확보’



기저수첩
양성운
(산업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기업들의 지역 투자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정부와 기업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남권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충청권 HBM 생산공정과 미래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의 구체적인 발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공장) 가동 목표를 2030년으로 잡고 부지를 선정하고 전력과 용수 등의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들의 비수도권 투자도 확대되는 조짐이

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하반기 투자계획’에서 응답 기업(106대사)의 27.4%가 3년 내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향후 3년 내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실제 안정적으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인재를 확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수도권에 거주중인 젊은 인재를 광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가족들까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쉽지 않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전남 나주도 젊은 인재들이 취업

이후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 또 젊은 인재들의 ‘꿈의 직장’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서울 강남에서 경북 경주시로 이전하면서 인재 이탈을 겪었다.

과거 ‘좋은 회사·좋은 직장’에 집착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복지 혜택을 갖춘 곳에서 마음에 맞는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특히 가정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울 밖의 넓은 집을 내놓고 대치동 전세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당장 4년 내 반도체 공장 가동 목표를 쫓기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이 지방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 등 정주 여건을 먼저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 (음 6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0년생 일마다 여의하니 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72년생 지나친 자만심은 독입니다 8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4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61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3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85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50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합니다. 6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6년생 연수를 가게 되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납니다.



51년생 선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화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52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4년생 지금까지 귀하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새겨 보세요. 76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88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53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77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이라. 89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54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등 재물이 쌓입니다. 66년생 소원을 풀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귀하를 도울 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90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5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9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91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6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68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2년생 평화로운 중에 항상 함정이 있는 법입니다.



57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69년생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의 대하세요. 8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93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70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94년생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59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1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95년생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길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민법은 상식의 법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은 민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민법과 연결되어 있다.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계약을 맺고, 물건을 사고팔고, 돈을 빌리고, 결혼을 하고, 재산을 남기는 과정까지 모두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사회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다. 법이라고 하면 나오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하는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 대부분은 민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 관계를 다룬다. 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거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민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정리해 주는 규칙이다. 민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물건을 살 때 돈만 건네고 물건을 못 받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법은 상식을 관장하는 법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다. 서로 믿고 거래하게 해주는 기반인 민법이 있어서 믿음의 사회가 가능하다. 민법의 물권 편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집이나 자동차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물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편은 약속과 거래 관계를 다룬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손해배상 규약 같은 내용이 채권편에 담겨있다. 가족관계 친족 편에서 혼인, 이혼, 친권, 양육처럼 가족을 이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카드를 끊는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까지, 민법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알게 모르게 지탱해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2	3	6	8	4
				1			
	7		8		9		
1		8		6		7	9
4			1				
		6		9			1
			3				
2	1	9	5		7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8	2	7	9	6	1	2
2	6	2	9	1	8	9	7	8
9	1	7	2	6	8	9	8	2
9	2	9	8	8	1	2	6	7
6	8	2	9	9	7	8	2	1
8	7	1	6	2	2	8	9	9
1	9	6	7	8	9	2	2	8
2	2	8	1	9	6	7	8	9
7	8	9	8	2	2	1	9	6

2	6	1	2	7	8	8	9	9
2	7	8	8	9	9	1	2	6
8	9	9	2	1	6	2	7	8
9	8	6	8	9	2	7	1	2
7	2	9	6	1	9	8	8	
8	1	9	7	2	8	9	6	2
1	8	8	6	2	7	2	9	9
6	9	7	9	8	2	8	2	1
9	2	2	1	8	9	6	8	7